

opusdei.org

4월 7일 사순 제5주 일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2019-4-5

4월 7일

사순 제5주일

요한의 복음 (8,1-11)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 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 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 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묵상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에게 돌을 던져 단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그분께서 단지 '그 여인을 죽이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문제없다. 너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너부터 돌을 던져라.' 그분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더라면, 그들의 죄들을 하나 둘씩 차례로 모래에 적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침착하지 못한 그들의 행동, 불안감, 걱정 등을 상상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용서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를 한 후, 고해성사를 한다면 우리의 비참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 하심은 우리의 죄들을 남김없이, 흔적 없이 태웁니다.

안젤리카 수녀가 바닷가를 거닐 때 큰 파도가 그녀의 발에 부딪혔습니다. 바닷물의 조그마한 물방울이 손에 떨어졌고 수녀는 바닷가로 발길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젤리카, 그 물방울을 보았니?”

“네, 주님” 안젤리카 수녀는 대답했습니다.

“그 물방울들은 너의 죄들과 같다. 너의 약함, 너의 불완전함 같은 것들이란다. 그리고 바다는 나의 자비와 같다. 만일 그 물방울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있겠니?”

“아니요, 주님.” 그녀는 답했습니다.

“만일 네가 보고 또 보고 다시 또 본다면 찾을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되묻으셨고, 안젤리카 수녀는 “못합니다. 주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말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계속해서 그 물방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니?”

고해성사를 본 후, 우리의 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여,
하느님의 자비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4weol-7il-sasun-je5juil/](https://opusdei.org/ko-kr/article/4weol-7il-sasun-je5juil/) (2026-1-29)